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스님도 번뇌 끊지 못하면 괴롭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가람(伽藍: 寺院)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따로 다시 무엇이 있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무엇이 가람 속의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과 자네야.”

問 如何是伽藍 師云 別更有什麼
云 如何是伽藍中人 師云 老僧與閣黎

1단계적인 말은 “저것은 소나무야” “저것은 꽃이야” “저것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스님이야” “저 사람은 장관이야” “저 차는 엘란트라야” “저 차는 에쿠스야”처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부르면 아무 쟁투도 없고 고통도 없다.

2단계적인 생각과 말은 “소나무는 푸르기에 절조가 있다” “꽃은 화사한데 나는 우울하다” “사원은 조용하니 극락과 같다” “스님은 행복하다” “장관은 성공한 자야” “엘란트라는 서민들의 차” “에쿠스는 귀한 자의 차야” 하고 생각을 짓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소나무는 스스로 생긴 대로 있는 것이지 절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꽃이 피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지 화사한 것이 아니다. 사원은 단지 조용한 것이지 행복한 곳은 아니다. 장관이 되는 것이 불행일 수 있다. 스님도 번뇌를 끊지 못하면 괴롭다. 엘란트라, 에쿠스로 사

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상 1단계만 말하라.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 2단계적인 생각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로 인해 괴로움이 몰려온다. 항상 있는 것 그대로 볼 것이지 평가하지는 말라.

학승이 물었다.
“두 마리 용이 구슬을 놓고 다툰 때 누가 얻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다만 지켜볼 뿐이다.”

問 二龍爭珠 誰是得者
師云 老僧只管看

용은 거물이다. 우주에서 두 마리의 용은 공(空: 빈)과 색(色: 물질)이다. 공에 의거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색(色: 물질)에 의거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색과 공,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

선사는 어떤 것에도 손을 들지 않는다. 단지 공이 보이면 공을 지켜보고, 색이 보이면 색을 지켜본다. 색이 필요하면 색을 사용하고 공이 필요하면 공을 사용한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한다. 생각이 많으면 괴로우니까 마음을 비운다. 마음이 고요해 지려면 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수련생활을 한다.
몸과 마음이 세계를 만들어간다. 몸을 움직여 재물을 충당하고 마음은 비워서 고요해지면 곧

행복이다. 공과 색은 사용할 뿐이다. 굳이 어느 쪽이 낫다. 싸울 필요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인과(因果)를 벗어난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실로 모를 뿐이야.”

問 如何是離因果底人
師云 不因閣黎問 老僧實不知

일반적으로 깨달은 자들은 환생, 불국토 왕생, 근원으로 회귀, 이 셋 중에 한 곳으로 간다. 환생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시 사바세계에 오는 것인데 일명 보살의 환생이다. 불국토 왕생은 대 표적인 곳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이다. 이곳에 현재 많은 보살들이 왕성한 곳이다. 그곳은 아마타불이 아직 설법을 하고 있다. 그곳은 누구든 그 세계에서 나기를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다.

근원으로 회귀는 법성(法性)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주의 근원점으로 돌아간다. 텅 비었으며 형태가 없지만 만물은 거기서 창조되고 있다. 업식(業識)이 아직 녹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갈 수 없다. 깨달은 자는 갈 수 있다. 깨달으면 인과(因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왜 모른다고 말했을까? 마음이 우주의 근원점과 같이 맑아지면 미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 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

무불선원 선원장

운상만의 서화산책 선가귀감구

한 물건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不滅 名不得狀不得(유일물여차 종본이래 소소영영 사증생부증멸 명부득상부득)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일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네. (선가귀감, 청허 휴정 대사)

於: 어조사 어
昭: 밝을 소, 비출 조
滅: 꺼질 멸, 멸할 멸
得: 얻을 득
狀: 형상 상, 문서 장

청이불선명부분유일
우오기가부중이일물
우오기가부중이일물
우오기가부중이일물
우오기가부중이일물
우오기가부중이일물
우오기가부중이일물
우오기가부중이일물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회규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원산지: 한국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액,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식 시트로 최적!
◇ 용도(공용):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